

인 사 말

종정예하의 수승한 덕화를 공경하며, 원로의장스님을 비롯한 원로 대중 사께서 전해주시는 고견과 격려를 항상 존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후학 대중을 지도하시는 것은 물론, 종단 대소사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종단 내외의 큰 일들을 마주하며,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한국 불교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 종도의 염원을 실천하고, 국민적 어려움을 함께하며 종교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간화선 무차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한국불교의 정수인 간화선의 선근을 선양하고 우리의 자산인 전통문화와 한국불교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뜻 깊은 대회였습니다. 더불어 평화로운 공존시대를 열어가는 큰 장을 열어 불자들의 자긍심들 크게 북돋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기원대회에 참여한 세계 불교지도자들이 한국불교의 저력을 보았다는 감사 인사를 전해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원로스님들의 염려를 잘 받은 결과로 여기고 있으며, 원력과 깊은 관심이 함께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였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공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사회의 큰 관심사였던 메르스의 여파로 사회와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제방의 기원을 담아 환자를 위로하고 의료진의 격려하는 등, 사회에 대한 종교적 도움을 갖고자 다양한 실천을 진행하였습니다. 언제나처럼 원로스님들의 수행정진의 공덕을 더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습니다.

금일 원로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다룬 종헌을 다시 점검하여 논의하자는 뜻에 따라, 중앙종회가 종헌을 새롭게 검토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륜의 지혜로써 좋은 의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종단 운영의 면밀함을 더할 수 있도록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더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로 대종사께서 늘 가지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종단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잘 받아 항상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스님의 건강과 덕화속에서 종단운영의 격려를 경청하고 소임자들은 면밀함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종도의 사표로서 후학을 지도해 주시고 법체 청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